

배운대로, 기술대로 만든다면 세계최고

신동호/성안기계 (주) 사장

1960년

태어나 햇수로 35살, 사람이라면 노후까지 생각해야 할 적지 않은 나이이다.

창업 35년을 맞이하는 성안기계는 포장기계 국산화에 공이 큰 그라비아인쇄기 전문메이커이다. 성안기계는 1991년 500만불 수출의 탑, 1992년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수출과 국내산업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상공부장관상 등 포장기계업계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업계의 주목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성안기계가 안정기에 접어든 직접적인 계기는 포장기계들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황속에서 국내 포장기계시장 개척과 외국시장 공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부터였다. 신사장은 "본래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포장기계업계에 뛰어드는 것을 겁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막연한 자신감은 학교에서의 공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이된 기분으로 포장기계를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금도 국내외 포장 관련 서적과 전시회 등 업계와 정보를 가장 먼저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포장기계 시장에는 다량의 외국 포장기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의 포장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포장기계업계가 외국사와 경쟁하기란 그렇게 쉽지않다. 그러나 국내 포장산업과 외국의 포장산업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적극 활용한 성안기계는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었다고 신사장은 지적했다. 즉 유럽은 경제공동체적 요소가 예전부터 강했기 때문에 대량처리 할수 있는 기계류가 발달했다. 그러나 국내환경은 소량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기계들은 한정된 업체에서 활용되었다. 또 다른 강국인 일본은 국내시장과 환경은 비슷하지만 무역다변화국에 묶여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내환경에 맞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국내제품이 외국것에 비해 불량률이 높아 대기업 등은 사용하기를 꺼리지만 이것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치부해서는 않된다고 한다. 이미 기술은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뒷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최종마무리 과정이나 단가



▲ 세계시장 개척을 강조하는 신동호 사장

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적격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배운대로 익힌대로 제품을 만든다면 국내 기술만으로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항상 이러한 자세로 만들도록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140억매출액 중 90%이상을 수출로 획득하고 있는 성안기계는 성공적인 외국진출업체로 꼽힌다.

이는 10여년 전부터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주도 전략을 취해온 성과라고 지적했다. 성안기계가 이처럼 수출로서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 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판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포장업계가 동남아의 상황을 너무 모릅니다. 막연히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하는 신사장은 현재 동남아는 특수 포장업계에서만 떨어질 뿐 국내 기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포장업계는 동남아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국내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정수 기자